



즉시 배포용: 10/22/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트랜스젠더 뉴욕주민을 불법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소개하다

미국 최초로 성정체성, 트랜스젠더 상황 또는 성별 불쾌감을 기반으로 한 학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규를 반포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권법을 통해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법규는 모든 트랜스젠더가 뉴욕주 인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및 기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 어디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주지사 신분으로 성정체성, 트랜스젠더 상황, 성별 불쾌감을 이유로 학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주 단위 법규를 발표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Empire State Pride Agenda**의 가을 디너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법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을 디너 행사에서 그는 단체 **Silver Torch**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학대와 차별이라는 고립힘은 잘 알려진 일로, 대부분 너무나 오랫동안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은 항상 **LGBT** 권리에서 미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Stonewall**에서 이 운동을 시작했고, 결혼 평등을 이끌었고, 지금은 이러한 방향에서 미국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어디서든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차별이나 학대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규는 사람의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 상황, 또는 성별 불쾌감을 이유로 민관 단체에 의한 학대와 다른 형태의 차별을 불법적인 차별로 간주한다는 것을 확인한 미국 최초의 주 단위 규제 조치입니다. 주법에 따라 뉴욕주 인권과(Division of Human Rights)는 인권법을 해석하는 법규를 알리는 규제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2009년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주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사실상 이 명령은 뉴욕주 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은 현재 차별 또는 학대를 다양한 수준에서 금하고 있는 조례 또는 법률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보호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주에서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학대를 주 단위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지사의 행동은 오늘 모든 트랜스젠더가 한 곳의 카운티 또는 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를 잃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주는 인권법 조항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오랫동안 보호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77년 **Richards** 대 미국테니스협회 판례에서, 인권법에 따른 학대 주장은 성 정체성으로 인해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업무는 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장애라는 보호 범주를 근거로 성 정체성 차별 민원을 수락하고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뉴욕과 이 지역의 연방 판례법은 성에 따라 트랜스젠더를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 인권법은 연방의 차별금지법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호 역할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성별 불쾌감이 뉴욕법원에서 인정했듯이 주법에서 발견되는 장애의 폭넓은 정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는 성별 불쾌감 진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뉴욕의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제공합니다.

뉴욕은 차별금지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1945년에 제정된 이 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학대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법원 또는 뉴욕주 인권과에 무료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뉴욕주의 지역사무소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인권과가 학대 또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과 커미셔너는 공청회를 통해서 사건을 판결하고, 일자리, 주택 또는 다른 수당, 임금인상 및 소급인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민사상 벌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할 경우 정책 변경과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민사상 벌과금은 최고 50,000달러 또는 최고 100,000달러가 될 수 있으며, 연방법에서와는 달리 개인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은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기존 인권법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은 뉴욕의 LGBT 시민권 운동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의 일부로, 법규를 통해서 트랜스젠더를 위한 주택 및 취업 보호 내용을 제정하는 이 과감하고 용기 있는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주지사의 조치로, 곧 수 천명의 뉴욕주민들은 자신들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다는 사실 하나로 2류 시민 취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Squadron 상원의원과 Gottfried 주의회원이 발의한 GENA(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은 뉴욕주 상원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의해서 수 년째 심사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상원에서 유일하게 LGBT임을 공개한 저는 이처럼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대단히 감사하며, 앞으로 주지사, 지지자, 저의 민주당 상원 동료의원들과 함께 향후 입법심의회에서 주지사의 조치를 성문화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Daniel Squadro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뉴욕주의 커다란 불평등 중의 하나를 바로 잡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입니다. 트랜스젠더 뉴욕주민은 이제 집, 직장, 공공 편의시설에서의 차별을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 제 입법부 동료, Hoylman 상원의원, Glick 주의회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분들과 저는 GENDA를 계속 밀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공정함을 쟁취하기 위해 불철주야 싸워오신 커뮤니티의 지지자들과 소속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Deborah Glick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뉴욕주민은 오랜 세월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법이 이분들의 삶의 현실보다 뒤쳐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다른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트랜스젠더 뉴욕주민에게 보호 역할을 실질적으로 더욱 확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께서 다시 한번 뉴욕이 모든 LGBT 뉴욕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Harry Bronson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뉴욕주를 크게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학대와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과감한 입장을 견지하는 데 완전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과 정의가 사실상 ‘모두를 위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주들과 연방정부도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Richard Gottfried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트랜스젠더 차별을 다루는 뉴욕 인권법 해석에 대한 행정조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을 위한 주요 조치입니다. 고용주, 주택 제공업체, 공공편의 장소, 채권자들은 트랜스젠더 차별이 그들의 관습과 정책에 대한 성 차별 형태라는 해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뉴욕주 상원은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평등을 지지하는 데 그 어떤 문제도 없도록 GENDA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ESPA(Empire State Pride Agenda)의 Nathan Schaefer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년에 걸친 열렬한 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밤 Cuomo 주지사의 발표로 트랜스젠더 시민권에 대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ESPA 위원회의 Norman C. Simon와 Melissa Sklarz 공동의장은 또한 “Pride Agenda가 LGBT 뉴욕주민들의 완전한 평등과 정의를 위해 계속 활동함에 따라 이 승리가 우리의 보폭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지사의 발표를 칭찬하였습니다.

이 법규는 45일의 공고와 의견 개진 시간을 거친 후 완전히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과거의 획기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2014년, 주지사는 Medicaid 프로그램 가입자들이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수술에 대한 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뉴욕주의 Medicaid 프로그램에 따라 트랜스젠더 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해 [새 법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지사 행정부는 또한 상업적 보험회사들이 성별 불쾌감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규 안내서](#)도 발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여름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HIV/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지사의 약속은 연간 신규 HIV 감자 수를 2020년말까지 750명(약 3,000명에서)으로 줄이고 HIV 확산율을 뉴욕 최초로 줄이는 일을 단행하여 달성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AIDS 감염자 감소로 인해 최초로 AIDS 확산이 감소되는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 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